

박근혜대표 피습

검경합수부 수사 전망

공모-배후여부 규명 주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수사를 위해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사안에 풀린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듯 발빠른 행보로 강도높은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해 사회안전을 책임지는 검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실제 합수부는 설치 당일인 21일 밤 테러범 지중호(50)씨 등 피의자 2명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22일에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고강도수사에 속도까지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수부는 이번 사건이 조직적·의도적 정치테러인지 아니면 개인의 우발적 돌출행동인지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찰 초동수사에서 테러범 지중호(50)씨 등의 범행에 관한 기초적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범행 동기 ▲공모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지씨가 유세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전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가 범행 전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신촌 현대백화점 앞 유세 때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범행 3시간여 전에 범행 도구로 쓰인 칼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사전계획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이승구 합수본부장은 지씨가 청송보호감호소에 있을 때부터 한나라당을 원망하는 언행을 자주 했다고 전하고 "악감정을 갖게 된 배경은 더 조사해

압수수색·영장청구 발빠른 대처

치밀한 사전계획...범행동기 초점

봐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씨의 단독범행인지, 공범이나 배후 교사범이 있는지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합수부 입장에선 중요한 수사 초점이다.

현장에 있었던 한나라당 당원들이 "지씨 범행 직후 '죽어, 죽어'라고 외치며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다"며 현장에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 합수부는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 유세현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지씨와 함께 붙잡힌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박모(52)씨는 "지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함께 붙잡힌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수부는 이들간 공모여부는 물론 이들의 배후세력 존재 여부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합수본부장은 이들의 통화내역 추적, 컴퓨터 수색, 계좌추적 등을 언급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세풍', '병풍'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 본부장의 경력을 문제삼아 대검으로 합수부를 옮기도록 촉구하고 있어 합수부의 거점이 대검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수사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의 향후 수사과정에서 만에 하나 지씨와 박씨가 공범인 것으로 드러나거나 지씨의 범행을 교사한 배후세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2일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치러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본부장인 이승구 서울 서부지검장이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온 되찾은朴대표 "국민 염려 감사" 입원 3일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흘째 입원 중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22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진정되고 '평온'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의 병실을 찾은 당내외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일째 병실을 찾았으며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와 강재섭 박진 원희룡 의원, 맹형규 박세일 윤여준 전 의원 등도 다녀갔다.

박 대표는 현재 정성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전날에는 이물질 배출을 위해 수술부위에 박아넣는 가는 튜브

인 '드레인'을 제거하고 경과가 좋으면 23일 상체에 포함된 실밥 일부를 제거한 뒤 3일 후에는 실밥을 완전히 빼낼 것으로 전해졌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은 22일 "박 대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마음 상태도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턱근육 상처와 침샘을 다쳤기 때문에 상처부위는 아직 붓기가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입을 움직이면 통증이 있어서 안정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기간과 관련, "1주일

이상하고 있지만 침샘상처가 깨끗이 나을 때까지 두고봐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께 퇴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부터 조간신문을 읽고, 앉아서 당무보고를 받는 등 피습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표는 자신의 피습관련 신문기사들을 보고 "국민이 염려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오 후에는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당무보고서를 전달받고는 "대전은요?"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고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는 문병 첫날인 지난 20일 가볍게 입을 책 덮개를 병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이날 피습사건을 계기로 '수호대'를 결성하고 나섰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모임회원으로 구성된 박 대표 수호대를 중앙 및 지방별로 조직해 앞으로 박 대표가 해당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자발적인 경호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성형도 함께..." 노혜경 노사모 대표 발언

여당내에서도 비판 확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노혜경(사진)씨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 대표는 "박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뜻은 언론이 호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글"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될 글이며, 노 대표의 의견과 열린우리당 기조와는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 대표는 21일 새벽과 오후 등 네 차례에 걸쳐 노사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는 처음엔 "박근혜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나쁘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다. 하지만 이어진 '우리당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교활한 언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처음에 17바늘 꿰맸다더니 60바늘 꿰맸다는 것을 보면 성형도 함께 한 모양"이라면서 "하마터면 경동맥을 자를 뻔했다거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의 하는 양을 보면 우리나라는 언론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표는 앞서 띄운 글에서 "박 대표 테러 사건은 박정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며 특정 보수 언론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라는 기호는 박정희의 악몽과 겹쳐 있는 구시대적 살아 있는 유령"이라며 "비록 박정희 딸이라도 테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박정희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상

식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점현 부대변인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노 대표는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처음에 열일곱 바늘 정도 꿰매야 한 다터라 하는 소리를 듣고 흥터가 남을 텐데 하는 걱정도 했는데 알고 보니 60바늘 봉합수술하면서 성형도 함께 했다는 것이더라"며 "(일부 언론보도도)보통 사람들이 성형이란 말에 미용성형을 떠올리는데 점을 약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한 의원은 "사람들은 노사모와 열린우리당을 함께 생각하는 만큼 노 대표의 주장은 열린우리당 기조와 구별돼야 한다"며 노 대표 글이 열린우리당의 의견과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감시절 인권위에 상습진정 재소자·교도관 수차례 폭행

살인미수 혐의 지중호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른 지중호(50)씨는 교도소 수감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습적으로 진정을 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재소자나 교도관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불량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지씨가 수감돼 있던 청송 제1보호감호소 소재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의성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1998년 10월 지씨는 교도소에서 방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재소자 김모씨의 이마를 발로 밟은 혐의로 '육중 기소'됐다.

지씨는 이듬해 1월 비디오 시청을 늦게 시켜줬다는 이유로 유리조각으로 감호소 교사 조모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처상)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교도관 감호소 인부와 재소자 및 담당 의사 등을 가리

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의성지원은 2002~2003년까지 이 범행들을 병합해 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즈음 가출소한 지씨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모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박 대표를 테러했다.

이와 함께 지씨가 지난 해 8월 청송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호관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씨 사건의 발단은 지씨가 가출소 뒤 갯생보호공단에서 머무르다 주소를 옮기고 아예 행적을 감췄지만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씨는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200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박대표 피습 지씨 행적**

- 2005.8월 지씨, 청송감호소 가출소. 3년간 보호관찰대상자로 결정. 지씨, 한국경생보호공단 인천지부에 출장간담. 지씨와 안지민, 한영애 한 차례 면담하는 일련보관할 대상으로 분류 됨
- 2005.11월 지씨, 청송보호관찰소, 지씨 거주 한국경생보호공단 인천지부에 출장간담. 지씨와 안지민, 한영애 한 차례 면담하는 일련보관할 대상으로 분류 됨
- 2005.12월 ~ 2006.1월 지씨, 청송보호관찰소, 각각 1차례씩 지씨와 면담
- 2006.2월 2일말 지씨, 생활관 떠나 행방 감속
- 2006.4월호 인천보호관찰소, 지씨 주민등록 조회 통해 주소지 확인. 1개월간도록 행방 불명 지씨 체하지 않음
- 2006.5월19일 인천보호관찰소, 지씨 주소지 방문, 행방조사
- 2006.5월20일 지씨, 서울 신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13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 내용은 '교도관이 폭행했다', '부당하게(수감 등) 계구가 채워졌다' 등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지만 1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본인 스스로 진정을 취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난, 변하고 싶어**

번식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upharm.co.kr

입술에 비타민을 주지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SENSSTICK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명품향 천연의 과일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에, 차와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치료효과 및 트림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큼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변덕쟁이랴?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뽀뽀뽀뽀가 있으니까 특특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